

광주 유일 탑솔라 여자검도팀 지역 체육계 활력 불어넣는다

올해 초 창단... 전국대회 동메달 여자검도 불모지에 '신선한 바람' 10월 전국체전서 맹활약 기대 오형석 회장 "운동 전념토록 지원"

탑솔라 여자 검도팀이 여자 검도 불모지 광주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28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대표기업인 탑솔라(주) (회장 오형석)가 올해 초 여자검도팀을 창단해 지역 체육 발전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오형석 회장

탑솔라그룹 오형석 회장은 광주시검도회 부회장으로, 후진 양성 등 여자검도 활성화를 위해 직접 팀을 창단했다. 원래 ㈜재운토건 여자검도팀으로 활동했으나 최근 오 회장이 팀을 새롭게 정비하고 창단했다. 팀은 오길현 감독, 박다연, 전지윤, 정서현, 허운영 등 정상급 선수단으로 구성됐다. 광주 유일의 여자검도팀인 탑솔라는 지난 4월 열린 제26회 춘계 전국실업대회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주 검도계는 탑솔라가 오는 10월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활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탑솔라(주) 여자검도팀. 전지윤(왼쪽부터)-정서현, 오길현 감독, 박다연-허운영 선수. <광주시체육회 제공>

오형석 탑솔라그룹 회장은 "지역 태양광 향토 기업인 탑솔라가 검도팀을 운영하며 검도 종목 연계육성이 더욱 강화됐다"며 "선수들이 고향 광주를 떠나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체육회 등과 지속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체육회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시와 협의해 탑솔라 여자검도팀을 비롯한 광주검도가 각종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또 우수선수가 광주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신유나 '우승 메치기'



광주도시철도공사 신유나(왼쪽)와 신대철 감독.

전국실업유도선수권 금메달

광주도시철도공사 신유나가 전국 유도 대회에서 1위에 올랐다. 28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신유나는 지난 28일 강원 동해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전국실업 유도선수권대회 여자부 57kg 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유나는 8강전에서 김재령(경남도청)에 기권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해 김미리(부산북구청)를 밧다리후리기 한판승으로 제압, 결승에 올랐다. 이어 결승전에서는 연장 접전 끝에 김이현(충북도청)에 밧다리걸기 절판승을 거두고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중국 벽에 막혀... 김소영-공희용 복식 준우승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 '발목 부상' 안세영은 3위

배드민턴 여자복식 김소영(30)-공희용(26)이 세계개인선수권 결승에서 '금빛 도전'을 멈췄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 에이스 안세영(20)도 '속적' 야마구치 아카네(25-일본)에게 패해 세계개인선수권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김소영-공희용은 28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린 2022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천칭천-자이판에 0-2(20-22 14-21)로 패했다. 1995년 김영아-장혜옥 우승 이후 27년 만에 한국의 세계개인선수권 여자복식 정상에 도전한 김소영-공희용은 마지막 관문에서 세계 1위 천칭천-자이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대회 한국의 유일한 결승 진출자였던 김소영-공희용이 결승에서 지면서 한국은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여자단식 안세영)의 성적으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이로써 한국은 2014년 대회서 남자복식 고성현-신백철이 우승한 이후 6차례 대회서 종목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천칭천-자이판은 대회 2연패 달성과 함께 2017년 대회 우승 이후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접전이 펼쳐진 1세트에서 막판 뒷심 부족으로 패한 것이 뼈아팠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원정 중국 팬들의 응원을 받은 천칭천-자이판은 1세트 시작 후 4연속 득점으로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김소영-공희용도 곧바로 4연속 득점으로 4-4 동점을 만들어냈다. 이후에는 중국이 달아나면 한국이 추격해 동점을 만드는 과정이 반복됐다. 경기 중반 오른손잡이 천칭천과 왼손잡이 자이판이 라켓을 부딪치는 실수를 반복하면서 김소영-공희용이 역전에도 성공했다. 한편, 안세영은 27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린 2022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여자단식 준결승에서 야마구치에게 0-2(19-21 12-21)로 패해 최종 3위에 올랐다. 29년 만에 한국 선수의 세계개인선수권 여자단식 결승 진출에 도전했던 안세영은 발목 부상에 고개를 떨궜다. /연합뉴스

김소영-공희용은 마지막 관문에서 세계 1위 천칭천-자이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대회 한국의 유일한 결승 진출자였던 김소영-공희용이 결승에서 지면서 한국은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여자단식 안세영)의 성적으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이로써 한국은 2014년 대회서 남자복식 고성현-신백철이 우승한 이후 6차례 대회서 종목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천칭천-자이판은 대회 2연패 달성과 함께 2017년 대회 우승 이후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접전이 펼쳐진 1세트에서 막판 뒷심 부족으로 패한 것이 뼈아팠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원정 중국 팬들의 응원을 받은 천칭천-자이판은 1세트 시작 후 4연속 득점으로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김소영-공희용도 곧바로 4연속 득점으로 4-4 동점을 만들어냈다. 이후에는 중국이 달아나면 한국이 추격해 동점을 만드는 과정이 반복됐다. 경기 중반 오른손잡이 천칭천과 왼손잡이 자이판이 라켓을 부딪치는 실수를 반복하면서 김소영-공희용이 역전에도 성공했다. 한편, 안세영은 27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린 2022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여자단식 준결승에서 야마구치에게 0-2(19-21 12-21)로 패해 최종 3위에 올랐다. 29년 만에 한국 선수의 세계개인선수권 여자단식 결승 진출에 도전했던 안세영은 발목 부상에 고개를 떨궜다. /연합뉴스

김소영-공희용은 마지막 관문에서 세계 1위 천칭천-자이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대회 한국의 유일한 결승 진출자였던 김소영-공희용이 결승에서 지면서 한국은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여자단식 안세영)의 성적으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이로써 한국은 2014년 대회서 남자복식 고성현-신백철이 우승한 이후 6차례 대회서 종목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천칭천-자이판은 대회 2연패 달성과 함께 2017년 대회 우승 이후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접전이 펼쳐진 1세트에서 막판 뒷심 부족으로 패한 것이 뼈아팠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원정 중국 팬들의 응원을 받은 천칭천-자이판은 1세트 시작 후 4연속 득점으로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김소영-공희용도 곧바로 4연속 득점으로 4-4 동점을 만들어냈다. 이후에는 중국이 달아나면 한국이 추격해 동점을 만드는 과정이 반복됐다. 경기 중반 오른손잡이 천칭천과 왼손잡이 자이판이 라켓을 부딪치는 실수를 반복하면서 김소영-공희용이 역전에도 성공했다. 한편, 안세영은 27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린 2022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여자단식 준결승에서 야마구치에게 0-2(19-21 12-21)로 패해 최종 3위에 올랐다. 29년 만에 한국 선수의 세계개인선수권 여자단식 결승 진출에 도전했던 안세영은 발목 부상에 고개를 떨궜다. /연합뉴스

광주여대 양궁 회장기 단체전 동메달



지난 27일 열린 올림픽제패기념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동메달을 수확한 광주선수들. 왼쪽부터 김정훈(조선대), 김민서, 최예진, 오예진, 김정윤(이상 광주여대).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조선대 김정훈 개인전 동메달

광주여대 양궁부가 올림픽제패기념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여대는 지난 27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대학부 단체전 준결승에서 한체대에 세트 스코어 4-5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국가대표 에이스 안산이 빠진 광주여대는 김민서, 오예진, 최예진, 김정윤이 팀을 이휘 8강전에서 순천대를 6-0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1세트를 57-54로 따낸 광주여대는 2세트를 52-55로 내줬고, 3세트를 58-57로 이기며 앞서갔으나 4세트에서 53-57로 패해 슛오프에 돌입했다. 최종 25점(9-8-8)을 쓴 광주여대는 28점(10-10-8)을 쓴 한체대에 아쉽게 패했다.

한체대는 결승에서 원광대를 꺾고 여자대학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6일 올림픽라운드로 열린 남자대학부 개인전에서는 김정훈(조선대)이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정훈은 8강까지 열린 4경기에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 기량으로 준결승에 안착했다. 64강에서 유강민(상지대)을 6-0, 32강에서 박지민(안동대)을 6-0, 16강에서 최성식(서원대)을 6-0, 8강에서 용혁중(한체대)를 6-0으로 제압했다. 김정훈은 준결승전에서 북병 서민기(계명대)에게 2-6으로 발목을 잡혀 완벽했던 질주를 아쉽게 멈췄다. 김정훈은 오는 10월 전국체전에서 금빛과 녍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m20 벽에 막혀... 이상혁, 파이널 진출 실패

로잔 다이아몬드리그 공동 8위

이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로잔 다이아몬드리그에서 2m20의 벽에 막혀 공동 8위에 그쳤다. 다이아몬드리그 랭킹 포인트 1점만 추가하는 데 그친 이상혁은 16점으로 7위까지 밀려 파이널 시리즈 진출(6명)에 실패했다. 파이널 시리즈 진출에 부족한 랭킹 포인트는 단 1점이었다.

이상혁은 27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2m20의 벽을 넘지 못해 공동 8위에 머물렀다. 이날 그의 기록은 2m15였다. 실의 개인 최고 2m25, 실내 2m36 기록을 보유하고 앞선 9차례 실내의 경기에서 연속해서 2m30 이상을 뛰어 무타즈 예사 바시(31-카타르)과 '빅' 구도를 형성했던 이상혁으로서는 아쉬운 결과다.

이상혁은 2m15를 1차 시기에서 가볍게 넘었으나 2m20에서는 3차례 모두 실패했다. 로잔 다이아몬드 남자 높이뛰기에 출전한 9명 중 2m20을 넘지 못한 선수는 이상혁과 셀비 매규언(26-미국) 등 2명이었다. 이상혁과 매규언은 공동 8위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우승은 2m24를 뚫은 안드리 프로첸코(34-우크라이나)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헌트
2관	헌트
3관	헌트, 육사오(6/45), 미니언즈2
4관	한산: 용의 출현
5관	육사오(6/45)
6관	육사오(6/45)
9관	볼링 트레인
7관 씨네캐플	육사오(6/45), 탐간: 매버릭, 미니언즈2, DC 리그 오브 슈퍼-펫
8관 씨네캐플	늑, 비상선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 II
2인 가극 아파르트
Chamber Series
2022. 9. 19(월) 19:30 |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235

광주국악상설공연
2022-9-1
일시: 2022. 9. 1(목) - 9. 30.(금)
매주 수-일 17:00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 8372

즐거움
문화산책